

## 일제하 초등학교 교사의 조선사 인식\*

장 신\*\*

I. 머리말	V. 조선인 초등교사의 조선사 인식
II. 일제하 초등교사의 양성과 교과서	VI. 맺음말
III. 수험과정과 조선사 시험문제	<참고문헌>
IV. 『대일본역사제요』의 조선사 서술	<국문요약>

### I. 머리말

이 글은 일제강점기에 초등학교, 특히 조선인이 다녔던 보통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했던 교사(훈도)의 역사인식을 ‘조선사’<sup>1)</sup>를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대중들이 역사, 특히 조선사를 학습할 기회는 매우 제한되었다. 다만 소수만이 초등학교를 통해 일본사를 중심으로 한 조선사를 배웠는데, 그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그들이 평생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조선사의 전부였다. 일제하 역사교육에 대해서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목표와 교과서의 내용 등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이 이미 나와 있다.<sup>2)</sup>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KRF-2003-041-A00041).

\*\*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한국근대사 전공(yuwadal@hanmail.net).

- 1) 이 글에서는 ‘한국사’ 대신에 당대에 쓰이던 ‘조선사’로 통일했다. 단 고려시대처럼 왕조를 뜻할 때는 조선시대로 표기했다.
- 2) 金廷鶴, 『日帝下の 歴史教育』, 아세아문제연구소(편), 『日帝의 文化侵奪史』(민중서관, 1970); 旗田 外, 『朝鮮人兒童に對する朝鮮總督府の歴史教育: 第二次朝鮮教育令下の歴史教科書』, 『日本は朝鮮で

선행연구는 역사교과서와 이 교과서에 보이는 역사교육의 내용을 탐구했으나 보통학교에서 역사를 교수하는 교사의 역사상을 따로 검토하지는 않았다. 단순히 역사지식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면 교사는 역사교과서를 통해 형성하기를 원하는 역사상을 체득하고 있어야 한다. 곧 역사수업에서는 지식뿐 아니라 교사의 조선사에 대한 인상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역사교육의 연구는 교과서 그 자체의 분석뿐 아니라 교사의 역사인식도 매우 중요하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개 역사인식, 역사교육을 문제 삼을 때 초등학교의 교과서만 다루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의 역사, 특히 조선사의 분량은 매우 적어서 교과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양은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상당한 부분을 교사에게 의존해야 한다. 달리 말해 교사가 이해하고 있는 역사상(朝鮮史像)의 정도가 학생의 역사인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글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초등교사의 양성제도, 초등교사의 역사인식에 영향을 미친 교과서와 자격시험, 그 교과서와 자격시험에 나타난 한국사상을 검토해야 한다.

교사가 역사지식을 학습하여 역사상을 형성하는 과정을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학생으로서 역사교육을 받는 시기이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사범학교나 중등학교에 설치된 사범과정을 마쳐야 했다.<sup>3)</sup> 이 경우 초등학교의 수업보다 중등학교, 특히 교사를 목표로 삼은 사범과정에서 교사로서 가르칠 수 있는 기본 역사지식을 습득했다.

둘째로 수험생으로서 교사시험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일제하 초등교사의 자격은 제1종·제2종·제3종으로 구분되었고, 사범과정에 따라 취득하는 훈도의 자격이

何を教えたか』(東京: あゆみ出版, 1987); 崔駟鎬, 『日帝 統治期 韓國에 있어서의 初等歴史教育課程 研究』, 『歴史教育』, 48집(1990); 최양호, 『일제하 조선총독부 편찬 초등용 국정 국사교과서의 변천』, 『교과서연구』, 6호(1990); 磯田一雄, 『第三次第四次朝鮮教育令下の國史教科書の改訂狀況: ‘内地’及び‘滿洲’の國史教科書との比較研究のための覺書』, 『成城文藝』, 130호(1990); 이명화, 『일제총독부 간행 역사교과서와 식민사관』, 『역사비평』, 1991년 겨울호(1991); 磯田一雄, 『皇民化教育と植民地の國史教科書』, 『岩波講座 近代日本と植民地 4』(東京: 岩波書店, 1993); 梁正鉉, 『日帝強占期 歴史教育 理念과 政策: 1920~30년대 중반 普通學校를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77집(1997); 김경미, 『‘황민화’ 교육정책과 학교교육: 1940년대 초등교육 ‘국사’ 교과를 중심으로』, 방기중(편), 『일제과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혜안, 2004).

- 3) 일제하 초등교사의 양성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 金英宇, 『韓國近代敎員教育史(1): 初等學校 敎員養成教育史』(正民社, 1987).

달랐다. 곧 처음부터 제1종훈도가 되기도 했지만, 대개는 제2종이나 제3종훈도부터 교직생활을 시작했다. 교사는 종별에 따라서 그 권한과 역할이 달랐기 때문에 제2종이나 제3종훈도는 항상 제1종이나 제2종훈도시험을 준비했다. 그러므로 응시하는 수험생의 처지에 따라 훈도시험은 채용시험, 자격시험, 승진시험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 시험에서 합격하기가 쉽지 않았으므로 학습의 양과 질에서 다른 시기보다 많은 공력을 들여야 했다.

셋째로 교사로 임용되어 학생들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면서 역사상을 재구성하는 시기이다. 수업을 위한 교안을 작성할 때는 『교수참고서』 등의 교사용지도서를 참고했다. 교사용지도서는 교과서보다 상세할 뿐 아니라 교수요령과 교수목표, 주의 사항 등을 서두에 제시하였다. 또 수시로 열리는 교사강습회에 참가하거나 『조선의 교육연구』, 『문교의 조선』 등에서 표준으로 제시하는 교수안을 참고하였다. 이 시기는 관리이자 교사로서<sup>4)</sup> 조선총독부가 역사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심으려는 역사상을 내면화하는 기간이었다.

교사의 조선사 인식을 보기 위해서는 위의 세 과정을 함께 검토해야 하지만 지면의 제약과 선행연구와의 중복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두 번째 과정을 중심으로 첫 번째와 세 번째 과정을 참고했다. 곧 훈도시험 수험과정을 중심으로 하되 사범학교에서 사용된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를 주요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 경우도 사범학교에서 사용된 교과서의 종류가 매우 많았지만 현재 남아있는 교과서가 적으므로 가장 널리 사용된 『대일본역사제요』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시기적으로는 보통학교에서 역사과목을 가르치기 시작한 1920년대 초반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를 다루었다. 또 제한적이지만 조선인 교사의 수업지도안도 분석했다.

## II. 일제하 초등교사의 양성과 교과서

### 1. 사범교육과 일본사교과서

일제하 조선에서 초등학교(소학교와 보통학교) 교사를 관제상으로 분류하면 학

4) 일제하 초등학교 훈도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 이기훈, 「일제하 보통학교 교원의 사회적 위상과 자기 인식」, 『역사와현실』, 63호(2007), 122~133쪽.

교장, 훈도, 촉탁교원, 강사 등이었다. 이 중에서 훈도의 권한은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갖추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출신 학교와 시험이 주요한 구성요건이었다. 곧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조선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길은 사범학교를 졸업하거나 (소학교·보통학교)훈도시험에 합격하는 게 주요한 통로였다. 이외에 일 본에서 사범학교나 각종 교원양성기관을 졸업하거나 소학교교원시험에 합격해 교원면허장을 받은 사람은 조선에서 교사가 될 수 있었다. 또 보통시험위원회의 전형을 거친 사람도 가능했다.<sup>5)</sup>

훈도는 제1종·제2종·제3종으로 구분되었다. 우선 1940년 현재 제1종 훈도의 자격요건은 ① 경성사범학교 연습과, ② 경성여자사범학교 연습과, ③ 경성중학교 부설 임시교원양성소, ④ 경성고등보통학교부설 임시교원양성소, ⑤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부설 임시교원양성소 등의 졸업자, ⑥ 제1종시험 합격자 등이었다. 제2종 훈도는 ① 경성사범학교 강습과, ② 경성여자사범학교 강습과, ③ 조선 각지에 설립된 사범학교 심상과, ④ 조선 각지에 설립된 사범학교 강습과, ⑤ 각 도립사범학교 특과 또는 강습과, ⑥ 경성고등보통학교 사범과, ⑦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등의 졸업자, ⑧ 제2종시험 합격자 등이 될 수 있었다. 제3종 훈도는 제3종시험에 합격하면 될 수 있는데, 1938년 3월 이전에는 조선인만 응시할 수 있었다.<sup>6)</sup>

교사를 양성하고 임용하는 과정이 다양했던 만큼 이 양성과정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도 다양했다. 1920년 이후 사범학교의 교과서는 조선총독부령 제17호 「사범학교규정」 제70조에 “조선총독 또는 문부대신의 검정을 거친 사범학교, 중학교, 고등보통학교, 고등여학교 또는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교과서” 중에서 하나를 정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사용했다.<sup>7)</sup> 곧 사범학교에서는 사범학교용 교과서뿐 아니라 일반 중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을 함께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일제시기에 중등학교에서 사용된 일본사교과서의 전모를 파악할 자료는 없다. 다만 특정시기를 대상으로 대략적인 추정은 가능하다. 1935년에 설치된 ‘임시역사교과용도서조사위원회’는 그 활동의 하나로서 초·중등학교의 일본사교과서와 동양사교과서의 조선사 관련 기술을 검토했다.<sup>8)</sup> 이때 검토된 교과서는 대략 1930년

5) 大谷保(編), 『改訂 小學校教員試驗要諦及問題集』(朝鮮公民教育會, 1940), 4-5쪽.

6) 위의 책, 3쪽.

7) 『朝鮮總督府官報』 1922.2.23.

을 전후한 시기에 조선총독이나 문부대신의 검정을 거친 것과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은 것들로서 그 숫자는 아래의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표 1> 임시역사교과용도서조사위원회의 검토 대상 역사교과서

	남자중등학교용		여자중등학교용		실업학교용		계
	일본역사	동양사	일본역사	동양사	일본역사	동양사	
문부성 검정	49	59	27	20	31	14	200
총독부 인가	15	22	9	7	19	3	75
총독부 검정	2	0	0	1	0	0	3

출전 : 『中等歷史教科書調査要旨(原案)』<sup>9)</sup>

<표 1>에 따르면 문부대신의 검정을 거친 일본사와 동양사교과서 200종 중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은 교과서는 75종이다. 나머지 교과서가 불인가되었다고 해석하기보다 각 학교에서 인가를 신청한 교과서의 종수가 75종 정도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 중에서 동양사와 실업학교용 교과서를 제외하면 26종이 남는데 여기에 총독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를 포함하면 모두 28종이다. 1935년에 ‘임시역사교과용도서조사위원회’가 활동할 당시에 사범학교를 비롯한 중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과서의 최대치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현재 사범학교에서 사용한 교과서를 알 수 있는 것은 경기도공립사범학교뿐이다. 1924년 현재 경기도공립사범학교는 2년 과정의 특과에서 후지타(藤田明)의 『수정 중등일본사 상·하』(보문관)를 1학년과 2학년에서 사용하고, 1년 과정의 강습과에서는 시마타(島田增平)의 『최신일본사강 전(最新日本史綱 全)』(보문관)을 교과서로 사용했다.<sup>11)</sup>

8) 權五鉉, 「임시 역사교과용도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과 황국신민화 역사교육」, 『歷史教育論集』, 30집 (2003) 참조.  
 9) 이 자료는 위원 중 1인이었던 경성제국대학 교수 田保橋潔의 소장본이다. 입수 경로를 알 수 없지만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 중이다.  
 10) 조선총독부의 교과서 검정과 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 장신,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와 교과서 편찬」, 『역사문제연구』, 16호(2006), 53-60쪽.  
 11) 京畿道公立師範學校, 『京畿道公立師範學校一覽』 1924, 55-57쪽, 이승구(외), 『한말 및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목록 수집 조사』(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1), 279-281쪽에 수록.

훈도시험에 정통한 수험서 출판사에 따르면, 각급 사범과정에서 사용된 교과서는 대개 훈도시험을 치를 때 참고서로 추천되었다. 제1종시험에서는 사범학교 정도에서 사용되는 교과서가 추천되었다. 제2종시험에서는 수험지에 속하는 도의 공립사범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중에서 선정되었고, 제3종시험에서는 각도의 교원양성강습소에서 사용한 교과서로 적당한 것을 추천했다.<sup>12)</sup>

<표 2> 1923~24년 제2·3종교원시험 참고서<sup>13)</sup>

지역	저자	교과서명	발행처	종별	
				2종	3종
강원	加藤盛一 高橋俊乘	大日本歷史提要	富山房	○	○
경남				○	
충북				○	○
평남				○	
충남	大森金五郎	中等日本歷史教科書(上下)	三省堂	○	○
평북	幸田成友	改訂 新定日本歷史(上下)	富山房	○	
경남	島田增平	最新日本史綱	寶文館		○

<표 2>는 1923년과 1924년에 걸쳐서 공고된 제2·3종시험의 참고서 목록이다. 추천된 교과서는 대부분 각도의 사범과정에서 일본사 수업교재로 사용한 교과서일 것이다. 가토(加藤盛一)와 다카하시(高橋俊乘)의 『대일본역사제요』를 여러 지역에서 볼 수 있는데, 이 교과서는 제1종시험의 참고서로도 추천되었다.<sup>14)</sup> 또 제3종시

12) 佐佐木郷兒, 『小學校及普通學校教員試驗者指針』(半島社, 1925 증보4판), 56, 60, 64쪽.  
 13) 출전은 다음과 같다. 朝鮮總督府平安北道告示 제40호, 「小學校及普通學校教員第二種試驗參考書左記ノ通り相定ム(1923.7.1)」, 『朝鮮總督府官報』 3269호, 1923.7.4; 朝鮮總督府平安南道告示 제71호, 「小學校及普通學校教員第二種試驗參考書左ノ通定ム(1923.9.3)」, 『朝鮮總督府官報』 3327호, 1923.9.12; 朝鮮總督府江原道告示 제71호, 「小學校及普通學校教員第二種及第三種試驗參考書左記ノ通り相定ム(1923.10.23)」, 『朝鮮總督府官報』 3355호, 1923.10.18; 朝鮮總督府忠清北道告示 제45호, 「小學校及普通學校教員第二種及第三種試驗參考書左記ノ通り相定ム(1923.8.17)」, 『朝鮮總督府官報』 3312호, 1923.8.24; 朝鮮總督府慶尙南道告示 제11호, 「小學校及普通學校教員第二種及第三種試驗參考書左記ノ通り相定ム(1924.2.19)」, 『朝鮮總督府官報』 3457호, 1924.2.25; 朝鮮總督府忠清南道告示 제3호, 「小學校及普通學校教員第二種及第三種試驗參考書左記ノ通り相定ム(1924.1.1)」, 『朝鮮總督府官報』 3424호, 1924.1.15; 朝鮮總督府慶尙南道告示 제11호, 「小學校及普通學校教員第二種及第三種試驗參考書左記ノ通り相定ム(1924.2.19)」, 『朝鮮總督府官報』 3457호, 1924.2.25.  
 14) 官通牒 제73호, 「小學校及普通學校教員試驗第一種試驗準備參考書ニ關スル件」, 『朝鮮總督府官報』

험 수준의 참고서로서 문부성 저작의 『심상소학교사』와 조선총독부 저작의 『심상소학교사보충교재』도 추천되었다.<sup>15)</sup>

제1·2·3종시험 참고서는 조선총독부와 각도에서 선정하여 관보에 공고했다. 그런데 한 번 고시된 참고서는 매년 교체된 게 아니라 새로운 고시가 공고되기 전까지 유효했다. 1923·4년에 고시된 참고서는 대부분 1931년에 교체되었다.<sup>16)</sup>

<표 3> 1931년 제1·2종교원시험 참고서

저자	교과서명	발행처	종별	
			1종	2종
藤岡繼平	統一中等歷史教科書 日本史(上級用)	六盟館	○	○
藤岡繼平	統一中等歷史教科書 日本史(上下)	六盟館	○	○
齊藤斐章	中等日本史	大日本圖書株式會社	○	
齊藤斐章 中川一男	中等日本史(1·2학년용)	大日本圖書株式會社	○	○
三省堂	日本歷史教科書(상급용)	富山房		○
大森金五郎	中等教育 新體國史教科書	三省堂		○
朝鮮總督府	普通學校國史教授參考書		○	○

출전 : 「廣告: 小學校普通學校教員試驗第一種及第二種試驗受驗準備參考書」, 『朝鮮總督府官報』, 1931년 9월 19일.

<표 3>과 <표 4>는 1931년도 훈도시험의 참고서 목록이다. 1923·4년과 다른 교과서도 보이지만 『대일본역사제요』가 단연 눈에 띈다. 이 책은 ‘임시역사교과용 도서조사위원회’의 검토대상의 하나였다. 또 1938년에 제1종과 제2종시험 참고서를 새로 고시할 때<sup>17)</sup> 『대일본역사제요』는 제3종시험 참고서로서 경기·충북·충남·전남·황해·평남·함북에서 지정되었다.<sup>18)</sup>

1923.7.24.

- 15) 佐佐木郷見, 앞의 책(1925), 56, 64쪽.
- 16) 이 경우 강원도의 예처럼 별도의 고시를 통해 기존의 고시를 폐지한 것으로 보인다. 朝鮮總督府 江原道告示 제60호, 「大正十二年總督府告示第七十一號ハ之ヲ廢止ス(1932.9.10)」, 『朝鮮總督府官報』 1932.9.17.
- 17) 中村孝也의 『改訂 新體國史(상하)』(帝國書院)과 朝鮮總督府의 『初等國史(권1·2)』가 제1종·제2종 공통참고서로, 그리고 長沼賢海의 『皇國史(1학년용)』(三省堂)이 제1종 참고서로 지정되었다. 「小學校教員(第一種第二種)試驗受驗準備參考書(昭和十三年五月)」, 『文教の朝鮮』 1938.6, 112쪽.

<표 4> 1931년 제3종훈도시험 참고서

저자	교과서명	발행처	사용지역
加藤盛一 高橋俊乘	大日本歷史提要(초급용)	富山房	경기 충북 충남 전남 황해 평남 평북 함북
開成館編輯部	新制日本歷史	開成館	전북
松本重彦	帝國史綱	帝國書院	경남
朝鮮總督府	普通學校國史(권1·2) 普通學校國史教授參考書	朝鮮總督府	강원
文部省	尋常小學校國史(권1·2)	文部省	

출전 : 朝鮮公民教育會(編), 『小學校普通學校教員試驗要諦及問題集』(朝鮮公民教育會, 1935, 51~70쪽).

## 2. 『대일본역사제요』의 구성과 특징

수없이 많은 역사교과서 중에서 『대일본역사제요』는 오랫동안 여러 지역에서 교원시험의 참고서로 선택되었다. 이것은 각급 사범학교에서 교과서로 널리 이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교육현장에서 『대일본역사제요』의 인기는, 무엇보다도 1930년대 중반까지 조선총독부에 검정을 출원하여 통과한 유일한 일본사교과서였다는 데 있다.<sup>19)</sup> 이 교과서는 1921년 3월 16일에 조선총독부 검정을 통과했다.<sup>20)</sup> 여학교등보통학교용인 나카무라(中村孝野)의 『여자신체국사(女子新體國史)』(제국서원)가 그 다음으로 검정을 통과한 게 1935년 12월 5일이었으니<sup>21)</sup> 『대일본

18) 그 외 전북은 中村孝也의 『中學昭和國史』(帝國書院), 경북은 三省堂編輯所의 『五訂 中等教科書 日本歷史教科書(상하)』(三省堂), 경남은 松本重彦의 『帝國史綱』(帝國書院), 평북은 大宮泰彦의 『新日本史(초급용)』(富山房)을 지정했으며 강원도는 1931년처럼 조선총독부와 문부성의 국사교과서와 교수참고서를 지정했다. 大谷保(編), 앞의 책(1940), 38-59쪽.

19) 조선총독부의 교과서정책에 따르면 검정의 주체(조선총독 또는 문부대신)에 관계없이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채택에서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누렸다. 따라서 일본의 출판사들은 굳이 조선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조선의 사정에 적합한 교과서를 제작해 검정출원하는 재정상의 부담을 지고자 하지 않았다. 그런데 1934년부터 조선총독부의 검정건수가 폭증했다. 193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검정교과서 채택전이 치열해지고 일본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일본의 교과서출판사들이 조선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까닭이다. 또 검정을 통과한 같은 교과서라도 총독부쪽이 문부성보다도 채택에서 우대되었던 상황 탓도 있다. 장신, 앞의 논문(2006), 56-57쪽.

20) 加藤盛一·高橋俊乘, 『大日本歷史提要 全』(東京, 富山房, 1921)의 속표지.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21) 『自昭和四年 至昭和十年 教科用圖書檢定の 経』(국가기록원 CJ0004907).

역사책요』의 독점적 지위를 충분히 알 수 있다. 게다가 이 책은 1925년부터 1933년까지 사범학교용으로 인가된 3종의 교과서 중 하나였다.<sup>22)</sup>

또 일본의 일본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사만 서술한 문부성 검정교과서와 달리 『대일본역사책요』는 고등보통학교, 곧 조선의 조선인 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된 교과서였다. 또 저자들은 이 책을 편찬하면서 학무국 편집과장 오다(小田省吾)의 지도와 비판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다.<sup>23)</sup> 오다는 교과서 편찬을 책임지는 고위관리면서 동경제대 사학과를 졸업한 학자였다.<sup>24)</sup> 오다의 자문은 '검정'이라는 형식적 측면을 넘어서 이 책에 제도적·학문적 권위를 부여하였다. 게다가 일본의 수많은 대학·전문학교 교수들이 교과서를 집필했지만 조선사 전공의 학자가 집필하거나 편찬에 관여한 교과서는 없었다.

조선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만큼 이 책에는 문부성의 검정교과서보다 조선사의 내용이 풍부했다. 명치유신 이전의 조선관련 기사는 전체의 1/5의 분량으로서 저자들은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를 주로 서술하고 조선에 관한 일관된 지식을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sup>25)</sup> 목차를 보면 흥망사와 대외관계사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표 5>는 『대일본역사책요』의 조선사 관련 장·절 제목을 보인 것이다. 일본사의 적당한 곳에 조선사를 삽입하여 불완전하지만 조선사를 계통적으로 서술하려고 했다. 이와 달리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한 뒤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은 교과서는 「조선반도와의 관계」,<sup>26)</sup> 「조선반도의 변천」<sup>27)</sup>이라는 장·절을 설정하여 일본사와

22) 나머지 둘은 三省堂編輯所の『中等教科 日本歴史教科書』(三省堂)와 藤田明의『師範教育日本歴史(上中下)』였다. 朝鮮總督府學務局, 『自大正十四年四月至昭和二年七月 既認可教科用圖書一覽』; 『自昭和六年十月至昭和七年九月 認可教科用圖書一覽』; 『自昭和七年十月至昭和八年九月 認可教科用圖書一覽』.

23) 加藤盛一·高橋俊乘, 「例言」, 『大日本歴史提要 全』(東京: 富山房, 1920), 1~2쪽. 이하 이 책의 분석을 위해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을 이용했다.

24) 小田은 1899년에 동경제국대학 사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 각지의 중등학교 교원을 역임했다. 1908년에 한국정부에 용병되어 학부 편집부에서 교과서 편찬에 종사하였다. 또 1910년부터 1924년까지 교과서 편찬의 총책임자인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 과장을 역임했다. 그 뒤 경성제국대학 예과부장으로 조선사를 가르치다가 1932년에 정년퇴직했다. 佐藤由美, 『植民地教育政策の研究: 朝鮮 1905-1911』(東京: 龍溪書舎, 2000), 267-268쪽.

25) 加藤盛一·高橋俊乘, 「例言」, 앞의 책(1920), 1쪽.

26) 三省堂編輯所(編纂), 『中等教科 日本歴史教科書 上級用』(東京: 三省堂, 1927 四訂増補).

27) 峯岸米造, 『中學校用 最新國史(上下)』(東京: 六盟館, 1929 第5版).

의 관계 속에서 조선사를 서술하였다. 또 1937년 3월 문부성의 개정교수요목에 준거해 발행된 교과서는 아예 조선관련 항목을 두지 않고, 일본사 속에서 조선사를

<표 5> 『대일본역사책요』의 조선사 관련 장·절 현황

장	장 제목	절 제목
5	고대의 조선 / 神功皇后	1절 고조선과 삼한 2절 삼국 3절 입나 4절 神功皇后의 신라정벌
6	문물의 수입 / 仁德天皇과 雄略天皇	1절 유학의 전래 2절 공예의 전래 5절 韓土의 변천
7	불교의 전래	1절 조선의 불교
10	백제·고구려의 멸망	절 없음
13	신라의 성쇠 / 渤海의 入貢	1절 신라의 성쇠 2절 발해의 入貢
18	고려의 흥기	1절 신라의 쇄망과 고려의 흥기 2절 고려의 遼 및 宋과의 관계 3절 내지와의 관계 4절 고려의 불교와 유학
24	고려의 衰運 / 元寇	1절 고려와 金の 관계 2절 고려와 몽고의 관계
30	고려의 멸망	1절 고려의 衰運 2절 고려의 멸망
33	조선의 初世 / 朝鮮役	1절 조선의 初世 2절 朝鮮役
35	조선과 청과의 교섭	1절 청과의 교섭 2절 조선의 衰運
36	諸外國과의 교통 / 천주교의 禁	1절 조선과의 교통
44	정한론과 대만정벌	2절 조선의 쇄국 3절 정한론 4절 江華條約
46	明治27·8年戰役과 조약개정	1절 明治15年 京城의 變 2절 明治17年 京城의 變 3절 친진조약 4절 동학당의 난
47	明治33年 北清事變 / 明治37·8年 戰役	1절 러시아와의 협상
48	한국병합 / 今上天皇御即位 / 세계대전과 우리나라	2절 한국의 보호 4절 한국의 병합

서술했다.<sup>28)</sup> 이것은 조선총독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도 마찬가지였다.<sup>29)</sup>

한편 보통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교과서와 비교했을 때 『대일본역사제요』의 서술이 훨씬 더 상세하고 풍부했다. 목차만 보더라도 1922년판 『보통학교국사』는 ‘박혁거세왕, 신라 일통(一統), 왕건, 대각국사, 조선태조, 이퇴계와 이율곡, 영조와 정조, 조선의 국정(國情)’으로 단순했다. 1932년판 『보통학교국사』도 이와 비슷했다.<sup>30)</sup> <표 6>에서 보듯이 교과서에 등장하는 인물도 『보통학교국사』보다 『대일본역사제요』가 다양했다.

<표 6> 1920·30년대 초·중등학교 일본사교과서의 조선사 관련 인물교제

시기	대일본역사제요	보통학교국사 (1922)	보통학교국사 (1932)
상고	素戔鳴尊 箕子 箕準 衛滿 右渠	箕子	素戔鳴尊 箕子
삼국 시대	朴赫居世 瓠公 昔脫解 朱蒙 濫祚 近肖古王 蘇那曷叱智 天日槍 阿直岐 王仁 阿知使主 弓月君 廣開土王 長壽王 聖明王 眞興王 眞平王 武烈王 鬼室 福信 豐璋 文武王 神文王 聖德王 景德王 大祚榮 眞聖女王 甄萱 弓裔 王建 敬順王	朴赫居世 朱蒙 濫祚 瓠公文武王 金庾信 王仁 弓裔 王建	朴赫居世 朱蒙 濫祚 天日槍 瓠公 長壽王 武烈王 金庾信 文武王 阿直岐 王仁
고려 시대	太祖 成宗 文宗 崔忠獻 忠烈王 恭愍王 辛旽 辛禰 李成桂 恭讓王 鄭夢周	太祖 成宗 文宗 大覺國師 崔忠獻 李成桂 鄭夢周	王建(太祖) 成宗 姜邯贊 高宗 元宗 李成桂 鄭蒙周
조선 시대	太祖 太宗 世宗 世祖 成宗 燕山君 李暉(退溪) 宣祖 光海君 英祖 正祖	李退溪 李栗谷 沈義謙 金孝元 仁祖 英祖 正祖	李退溪 李栗谷 沈義謙 金孝元 宣祖 李舜臣 仁祖 英祖 正祖
개항 이후	李熙(李太王) 李昰應(大院君) 金玉均 閔氏 朴英孝 韓國皇帝(李王) 李垠	李熙(李太王) 李昰應(大院君) 韓國皇帝	大院君 韓國皇帝

28) 三省堂編輯所(編), 『中學國史教科書 第四學年用』(東京: 三省堂, 1938 修正再版); 中村孝也, 『中學昭和新國史 第一學年用』(東京: 帝國書院, 1938 제2판); 西田直二郎, 『中學 國史通記 上級用 前篇』(大阪: 積善館, 1941 訂正四版).  
 29) 長沼賢海, 『中學校用 皇國史 第四學年用』(三省堂, 판권년장). 이 책은 1938년 12월 13일에 고등보통학교용으로 조선총독부 검정을 통과했다.  
 30) ‘박혁거세왕’이 ‘옛날의 조선’으로, ‘대각국사’가 ‘고려와 몽고’로 바뀐 정도였다.

### III. 수험과정과 조선사 시험문제

수험과정에 돌입한 응시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은 참고서의 선택이었다.<sup>31)</sup>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제1종시험의 한 합격자도 여러 종의 참고서를 전부 독파하여 기억하는 일은 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참고서의 선택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합격자는 사범학교의 교과서가 바로 시험문제의 기초이기 때문에 먼저 경성사범학교의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기타 관립사범학교의 교과서를 공부하고, 그래도 해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 총독부가 고시한 참고서를 보고 공부할 것을 권했다.<sup>32)</sup> 이와는 달리 제3종시험 응시자는 “많은 참고서를 읽기보다 기본적인 참고서를 정독하고, 정확히 반복학습 하는 데에 노력”한 게 합격의 비결이었음을 밝혔다.<sup>33)</sup> 그 어떤 경우도 각 학교의 교과서와 총독부에서 고시한 참고서의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참고서를 선택한 수험생의 다음 과제는 기출문제의 입수와 분석이었다. 최근 5년간 훈도시험문제의 분석은 기본이었다.<sup>34)</sup> 1935년 6월에 경기도에서 시행된 제3종교원시험에 응시한 한 합격자의 개별과목 공부법이다. 출제경향을 알기 위해 1) 각 과목별 조선 전도의 제3종 시험문제, 2) 경기도의 1929년부터의 출제경향, 3) 중요문제에 대한 각도 전부의 경향 등을 조사한 뒤, 올해에 출제될 예상문제를 뽑고 참고서에서 모범답안을 그대로 노트하여 철저히 암기하는 것이 기본이었다.<sup>35)</sup> 교원시험의 문제유형은 종별에 관계없이 아래 1922년도 충북의 제3종시험처럼 상세히 서술하기, 이는 대로 서술하기, 간략하게 서술하기를 기본으로 하고 때때로 연도순으로 배열하기 등이 출제되었다.

1. 상고의 내선관계를 간략히 서술하라.
2. 명치27·8년 戰役의 원인, 경과, 결과의 대요를 기술하라.

31) 수험 과정과 수험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장신, 「1919-43년 조선총독부의 관리임용과 보통문관시험」, 『역사문제연구』, 8호(2002), 66-70쪽 참조.  
 32) 李光天, 「小學校教員試驗第一種に合格して」, 大谷保(編), 앞의 책(1940), 70쪽.  
 33) SK生, 「第三種試驗に合格した喜び」, 大谷保(編), 위의 책, 98쪽.  
 34) 李光天, 「小學校教員試驗第一種に合格して」, 大谷保(編), 위의 책, 71쪽.  
 35) 黃義華(京城竹添公立小學校訓導), 「教員試驗合格體験談」, 大谷保(編), 위의 책, 94쪽.

3. 아래를 연대순으로 배열하라.

聖德太子 北條時宗 大院君 遠世凱 李成桂 伊藤博文 徳川家康 日本  
武尊 徳川慶喜 菅原道眞

4. 아래를 아는 대로 쓰시오.

(1) 大化改新 (2) 神皇正統記 (3) 헌법발포 (4) 포츠머스조약<sup>36)</sup>

물론 줄줄 암기하여 교과서 그대로 쓴다고 답안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sup>37)</sup> 채점을 마친 시험위원의 강평을 보면, 암기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꺾테기가 아닌 역사적 사실 속에 숨겨진 정신·생명을 발견하는 답안을 쓸 것을 요구했다. 곧 역사의 묻는 바는 사실(史實)의 구어적 해석이 아니므로 그것을 넘어서는 답안을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sup>38)</sup>

예를 들어 아라이(新井白石)과 한무제(漢武帝)에 대해 묻는다면, 이것은 중국사와 일본사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조선에 관계된 문제라는 것이다.<sup>39)</sup> 이처럼 총독부가 요구하는 역사의 내면을 이해한 수험생은 전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소수가 합격하여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수험법을 염두에 두면서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교원시험의 역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1919~23년, 1931~1934년 교원시험 역사과목의 조선사 관련 기출문제

	대일본역사제요 장절	1919~23년 기출문제	1931~34년 기출문제
고대	5. 고대의 조선	상고의 내선관계(2) 스사노오노미코토(1) 고구려 이전의 역사개요(1) 한사군(1)	天日槍(1) 내지와 백제의 관계(2) 기지(1) 낙랑군(4) 호태왕(2) 백제의 흥기와 멸망(1) 웅진(1)

36) 佐佐木郷見, 『小學校及普通學校教員試驗者指針』(半島社, 1925), 202~203쪽.  
37) 黃義華(京城竹添公立小學校訓導), 『教員試驗合格體驗談』, 大谷保(編), 앞의 책(1940), 94쪽.  
38) 『昭和八年一月施行教員試驗答案所見並試驗問題』, 『文教の朝鮮』, 93호(1933), 132쪽.  
39) 『昭和九年一月施行小學校及普通學校教員試驗答案所見並試驗問題』, 『文教の朝鮮』, 108호(1934.8), 213쪽.

	6. 문물의 수입	조선에서 내지에 미친 문화적 영향(1) 한학의 일본전래(1) 왕인(2) 아지사주(1)	한학의 전래(1) 상고 공예의 전래(1) 弓月君(2)
	7. 불교의 전래	불교전래의 계통연대(1)	불교전래의 유래와 영향(1)
	10. 백제 고구려의 멸망		齊明天皇시대 삼국관계(1) 당과 조선과의 관계(1) 唐平百濟碑(1)
	13. 신라의 성쇠 발해의 入貢	신라통일(1)	신라통일과 문화(1) 경주(1) 불국사 다보탑(1) 발해국(1) 대조영(1)
중세	18. 고려의 흥기	개성(1)	건원(1) 왕건(3) 고려의 문화(2) 최충(1) 高麗號(1) 삼국사기(1)
	24. 고려의 쇠운 / 원구	원구(1)	최충현(1) 원구(1)
	30. 고려의 멸망	정몽주(1)	정몽주(2)
근세	33. 조선의 초세	이성계(3) 세종황의 사적(1) 김종서(1) 언문의 기원(1) 경국대전(2) 이황(2)	이조 초세의 내치의 대요(1) 이성계(1) 성종(1) 조선의 유학(1) 이율곡(3) 이퇴계(3) 선조(1) 의정부(1) 비변사(1)
	35. 조선과 청과의 교섭		
	36. 제 외국과의 교통	對馬島 宗氏와 조선관계(1)	조선과 일본의 관계(1)
최근세	44. 정한론과 대만정벌	강화조약(1) 대원군(4)	이조말기의 대외관계(1)
	46. 명치27·8년 전역	김옥균(1) 天津條約(1) 명치27,8년 戰役 원인(4) 袁世凱(1) 下關條約(1) 갑오개혁(1)	동학당(2) 일청, 일로의 원인결과와 조선과 관계되는 내용(2)
	47. 명치37·8년 전역	명치37,8년 戰役 원인(1)	일로전역 원인결과(3) 伊藤博文(2)
	48. 한국병합	한국병합의 전말(1)	한국병합의 유래(4)

출전 : 佐佐木郷見, 『小學校及普通學校教員試驗者指針』(半島社, 1925); 朝鮮公民教育會(編), 『小學校普通學校教員試驗要諦並問題集』(朝鮮公民教育會, 1935).

비고 : ( )의 숫자는 시험문제 출제 회수

일제하 전기간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서 제한적이지만 경향과 유형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다. 우선 고대를 보면 한일관계, 문화와 불교의 전래, 신라의 삼국

통일과 문화, 한사군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한일관계를 묻는 문제에는 상고의 내선관계, 스사노오노미코노, 아메노히호코(天日槍) 뿐 아니라 광개토왕도 포함되었다. 문화·불교의 전래에는 그 내용과 왕인·궁월군·아지사주 등 전파자를 함께 출제하였다. 낙랑군뿐 아니라 고구려 이전의 역사개요도 한사군을 묻는 문제였다. 폭넓은 한일관계에 포함되지만 신공황후나 임나일본부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게 특기할 점이다.

고려사를 다룬 중세사는 상대적으로 출제빈도가 낮았다. 1930년대 들어서야 왕건, 정몽주, 이성계 등 왕조흥망기의 인물이 조명을 받았다. 조선사의 영역은 아니지만 발해와 대조영도 언급되었다. 최종, 삼국사기 등 고려의 문화에도 관심을 보였지만 이 시기에 성행했던 불교문화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다. 무신정권에 대해서는 최충헌이 유일했다.

조선시대의 경우 조선 초기의 정치와 문화를 세종 중심으로 풀어나갔다. 김종서와 언문의 기원, 경국대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퇴계와 이율곡 등 조선 유학은 자주 여러 지역에서 출제되었다. 조선후기의 한일관계도 대마도 소우씨(宗氏) 등과 함께 묻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반면에 선조, 비변사, 의정부 등과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임진왜란은 금기시되었다. 또 보통학교에서 한 장을 설정하여 가르치는 영조와 정조를 찾아볼 수 없다.

고대사와 함께 초중등 역사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근세의 출제 키워드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국병합’ 등이었다. 전쟁의 원인과 진행과정, 결과인 조약의 체결과 그것에 관계한 인물들을 묻는 문제가 망라되었다. ‘한국병합’의 유래는 명치유신 이후 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 삼국 역사의 귀결이자 조선총독부 역사교육의 목적이었다.

#### IV. 『대일본역사제요』의 조선사 서술

##### 1. 고대사

문제 중의 하나인 ‘고구려 이전의 역사개요’를 『대일본역사제요』를 통해 정리하

면, 조선 최초의 왕은 기원전 11세기 무렵 중국에서 온 은나라 왕족 기자였다. 9백년 뒤 연나라 사람 위만은 기자의 후손인 기준을 몰아내었다. 얼마 후 중국의 한나라는 위만의 손자 우거를 멸망시키고, 그 땅에 진번·임둔·낙랑·현도 등의 사군을 설치했다. 한사군은 만주의 부여족인 고구려에게 망했다.40) 따로 위치 비정을 하지 않았지만 평양을 중심으로41) 한 북부지역은 기자조선부터 고구려까지 중국의 영토였으며, 한족 또는 만주족의 역사로 인식하는 게 당연한 논리였다.

또 이것은 조선총독부가 교사들을 통해 아동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역사상이었다. 조선총독부는 교사용 지도서인 『보통학교국사교수참고서』에서 “조선반도의 영역은 북부와 남부로 크게 나뉘며 서로 다르다는 것. 북부는 옛부터 지나에서 들어온 사람이 통치하고 전부 지나의 영토였다는 것, 남부는 조선인의 조선(祖先)인 한(韓)종족의 거주지였으며 일찍부터 일본과 직접 관계가 있었”음을 가르치는 게 교사용지라고 밝히고 있다.42) ‘조선’은 북부의 왕조나 지역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역사용어였다.

교사용 지도서에 따른 ‘상고의 내선관계’는 처음에 조선 남부와 일본의 관계였다. 이 관계는 신대(神代)부터 시작했으며 그 주인공은 스사노오노미코토(素戔嗚尊)였다. 그는 아들과 함께 ‘반도’에 건너가 소시모리(曾尸茂梨)에 머무르면서 그 지방을 영토로 삼은 후, 많은 나무를 일본에 옮겨 심어서 왕래에 필요한 배를 만들 목재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신라가 건국되고 일본에서 건너온 호공(瓠公)과 석탈해는 각각 신라의 재상과 왕이 되었다. 이처럼 일본 세력은 한때 ‘반도’를 복종시킬 정도였지만 어느 사이엔가 약해졌다.43) 관계는 변한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신라의 압박으로 괴로워하던 대가야는 소나카시치(蘇那曷叱智)를 사신으로 보내어 조공하면서 일본의 도움을 요청했다. 일본은 ‘임나’라는 국명을 내린 후 시하노리쓰히코(鹽乘津彦)을 보내어 대가야를 보호했다. 또 신라 왕자 아메노히호코(天日槍)이 왕위를 동생에게 양보한 뒤 일본에 귀화했다.44)

시간이 흘러 일본과 가장 친밀했던 신라가 세력을 얻으면서 구마소(熊襲)를 선

40) 『대일본역사제요』, 11, 13쪽.

41) 『대일본역사제요』, 12쪽에는 기자묘 사진을 싣고 평양에 있다고 설명했다.

42) 朝鮮總督府, 『普通學校國史教授參考書 全(朝鮮史歷教材)』(1923), 1쪽.

43) 『대일본역사제요』, 13쪽.

44) 『대일본역사제요』, 14쪽.



동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진구(神功)황후가 신라를 정벌하러 가자 이를 두려워한 신라왕은 매년 조공을 바칠 것을 맹세했다. 진구황후의 신라정벌은 어느 순간 약해졌던 한토(韓土)의 회복이었다. 한편 고구려를 쳐서 그 땅을 뺏는 등 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끈 근초고왕은, 고구려의 복수를 두려워하여 일본에 조공하여 보호를 구했다. 이어 고구려도 내빙함으로써 한토 모두가 일본에 복속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임나에 일본부를 두고 삼국을 통제하였다.<sup>45)</sup>

고구려 광개토왕이 백제와 신라를 침공하자 일본은 고구려와 싸워 백제와 신라를 구하고 그 국토를 보전했다. 그러나 신라는 다시 힘을 키워 진흥왕 때 임나를 멸망시켰다.<sup>46)</sup> 나아가 무열왕 때 당과 동맹을 맺고 백제를 멸망시켰다. 일본은 백제에 구원군을 보냈으나 실패했다. 신라는 고구려마저 멸망시키고 삼국을 통일했다. 이때부터 조선반도는 일본의 세력권에서 이탈했다.<sup>47)</sup> 이처럼 일본사에서 삼국 통일은 밀접했던 한일관계의 단절을 의미했다.

문물과 불교의 전래는 밀접했던 한일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전래된 문물은 중국의 것이었다. 조선은 중국과 육지로 연결된 까닭에 조선의 진보된 문물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중국에서 삼국으로 건너와 사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sup>48)</sup> 삼국의 복속뿐 아니라 신공황후의 신라정벌의 또 다른 의미는 중국 문물을 일본으로 전래하는 기초를 다진 데 있었다.<sup>49)</sup> 삼국의 역할은 매개자로서 중국 문물을 일본에 전달하여 발달을 돕는 것이었다.

백제의 아직기가 가르친 학문은 한학(漢學)이었다. 왕인은 유학의 근본 경전인 논어를 현상하여 ‘중국의 유교’를 전했다. 아지사주(阿知使主)도 많은 백성을 이끌고 일본에 귀화하여 왕인과 함께 조정에 출사했다. 이 무렵 백제의 기직(機織)·단야(鍛冶)·양조 직공 등과 중국인 궁월군(弓月君)이 많은 인민을 이끌고 일본으로 건너가 양잠·방직 등의 공예를 발달시켰다. 백제 성명왕(聖明王)은 불상과 경론(經論)을 현상했다.<sup>50)</sup>

45) 『대일본역사제요』, 16쪽.

46) 『대일본역사제요』, 20쪽.

47) 『대일본역사제요』, 30쪽.

48) 『대일본역사제요』, 16쪽.

49) 朝鮮總督府, 『普通學校國史 兒童用 上卷』(1922), 21쪽.

50) 『대일본역사제요』, 17, 21쪽.

고대사의 서술 순서를 보면, 한사군 뒤에 삼한을 서술했다. 그리고 삼국은 신라의 건국부터 시작했다. 이것은 『보통학교국사』(1922)에서 조선사 관련 첫 장의 제목이 ‘박혁거세왕’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고대 민족이 전하는 전설이 아니라 후대 종교가가 만든 것에 불과한 단군”이라는 인식에서 단군을 조선의 시조에서 배제하고, 비교적 확실한 박혁거세를 “진구황후의 예비”로써 그 중심에 두었다.<sup>51)</sup> 또 단군전설은 조선 북부의 것일뿐 남부 한(韓)종족과 아무런 연관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sup>52)</sup> 이러한 배치는 고구려를 만주사의 영역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는 일맥상통한다.

다만 고대 한일관계의 구체상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대일본역사제요』와 『보통학교국사』는 그 상을 달리한다. 『보통학교국사』의 고대 한일관계는 교류와 왕래를 중심으로 서술했으며, 전쟁도 부득이한 것으로 설명했다. 곧 일본의 대외관계는 침략주의가 아니라 평화주의라는 것이었다. 진구황후가 신라에 ‘출병’한 이유도 임나의 평화와 일본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방편이었다. 이것은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뿐 아니라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였다.<sup>53)</sup> 무엇보다 조선인 아동의 반감을 사지 않고 역사교육을 진행하려면 침략이나 투쟁을 부각하기보다 친목과 문화교류를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sup>54)</sup>

반면에 『대일본역사제요』는 “스사노오노미코토(素戔嗚尊)가 신라를 영토(疆土—필자)로 삼아”서 “일본세력이 한때 반도를 복종”시켰으며, 세력을 얻은 신라가 반란을 일으키자 신공황후가 정벌에 나섰으며, 일본은 구원을 청한 가야(임나)와 백제를 보호했던 관계로 서술했다. 달리말해 중등교육에서 한일관계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였다. 그렇게 때문에 중등학교에서 “일선관계의 사실은 특수한 취급”이 요청되었다.<sup>55)</sup>

51) 朝鮮總督府編修官 木藤重徳, 「國史教科書編纂の要旨と取扱」, 『第一回朝鮮初等教育研究會錄』(1925), 84~85쪽.

52) 朝鮮總督府, 『普通學校國史教授參考書 全(朝鮮史歷教材)』(1923), 9쪽.

53) 木藤重徳, 앞의 논문(1925), 92쪽.

54) 慶尙北道教育會(編), 「國史教授法打合會原案」, 『文教の朝鮮』 33호(朝鮮教育會, 1928.5), 94, 103쪽; 梁正鉉, 「日帝強占期 歷史教育 理念과 政策: 1920~30년대 중반 普通學校를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77(1997), 234쪽.

55) 朝鮮教育會, 「國史崑外國歷史教授法要綱」, 『教育參考資料』, 제4집(1924), 87쪽.

## 2. 중세사 : 고려와 조선

삼국통일 후 신라는 한때 일본에 조공을 끊었다가 이내 사신을 보내어 입공(入貢)했다. 또 말갈족 추장 대조영이 고구려의 유민을 모아 건국한 발해<sup>56)</sup>도 일본에 입공하여 사신을 교환했다. 반면에 고려를 건국한 태조는 사자를 보내어 입공을 청했지만 일본이 거절했다. 이로써 한일간의 공적 교류는 끊어지고 변경무역을 중심으로 사적 교섭만 행해졌다.<sup>57)</sup>

조선총독부의 역사교육에서 조선사는 한일관계사 중심인 까닭에 중등학교나 보통학교에서 고려시대의 서술은 매우 간략하다. 출제빈도도 역시 그러했다. 따라서 문제는 왕조의 개창자에게 집중되었다. 이것은 조선사를 흥망성쇠의 역사로 보는 입장이었다. 흥망성쇠의 과정에서 민중의 고통은 가중되었는데, 병하기를 계기로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천황이 통치하는 일본제국에 편입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그러한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는 의미였다.

고려 태조는 후삼국을 통일하여 국가의 기초를 세웠는데, 왕권을 통해서 “신라 말기의 모양과 고려 건국에 이르는 역사사실”<sup>58)</sup>을 아는 게 중요했다. 마찬가지로 조선 태조 이성계를 통해서도 “고려말기의 사정을 서술하고 왕권의 쇠미(衰微), 무인발호의 모습 등을 알게 하며, 일본과 지나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고려가 멸망에 이르는 까닭을 설명하고 조선시대 초기의 모습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sup>59)</sup> 또한 정몽주도 ‘충신’의 이미지보다 이성계의 대립항으로서 고려왕조가 멸망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장치였다.

『보통학교국사』(1922)의 장 제목이 「대각국사」인 데서 알 수 있듯이 고려문화의 핵심은 불교였다. 고려의 왕들은 승(僧)을 중국에 파견하고, 사원을 건축하며 많은 경전을 출판했다. 전란으로 피폐해진 중국(宋)이 경전을 고려에서 구할 정도로 고려의 불교는 융성했다. 성종 이후 유학도 성행하여 문종 때에 최종 같은 대유(大

56) 대조영을 말갈족 추장으로 서술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조선총독부의 역사교육에서 발해사는 조선사의 영역에 속하지 않았다. 『普通學校國史教授參考書 全(朝鮮史歷教材)』에서 발해는 한일관계가 아닌 일본 대외관계사의 하나로서 취급되었다.

57) 『대일본역사제요』, 39, 56쪽.

58) 朝鮮總督府, 『普通學校國史教授參考書 全(朝鮮史歷教材)』, 69쪽.

59) 朝鮮總督府, 위의 책, 94쪽.

儒)를 배출하는 등 다수의 이름 있는 유자(儒者)가 나왔다.<sup>60)</sup>

출제되지 않았지만 고려시대사 교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것은 요, 송, 금, 몽고 등과의 대외관계였다. 교과서의 서술을 보면, 발해를 멸망시키고 만주를 통일한 거란(遼)에게 복속된 고려는 요에 공납을 바쳤다. 여진족이 세운 금이 요를 멸망시키자 다시 고려는 금의 책봉을 받아 복종함으로써 나라의 안정을 꾀했다. 원(元)에 항복한 뒤로는 원의 황녀를 왕비로 맞이하고 내치와 외교 모두 원의 명령을 받들었다.<sup>61)</sup> 이러한 서술은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다. 이성계는 왕위에 오른 뒤 명에 보고하여 책봉을 받고 조선이라는 국호를 받았다. 청이 건국하여 침략했을 때도 조선은 항복하면서 명과의 관계를 끊고 책봉을 받아 청의 연호를 사용했다.<sup>62)</sup> 이처럼 “거란을 시작으로 북방강국이 일어날 때마다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반도가 그에 복속하는 사실”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은<sup>63)</sup> 초등·중등과정 모두에 동일했다.

왕조의 초기는 각종 문물과 제도를 정비하는 기간이었다. 고려시대도 태조부터 4대 성종까지의 문물정비를 서술했는데, 조선시대도 태조부터 6대 성종까지의 각종 치적을 서술했다. 태조는 어진 인재를 등용하여 제도를 세워 조선 5백년의 기초를 열었다. 태종은 활자를 만들어 서적을 출판하는 등 학문을 장려했다. 세종도 학문을 좋아하여 한글을 만들고, 형옥(刑獄)을 완화하며 조세를 정비하는 등 ‘해동의 요순’으로 불렸다. 또 세종 때에 대마도의 종씨와 통교조약을 맺어 삼포에서 무역이 이루어졌다. 세조는 법령을 편찬하여 정치의 근본을 다졌고, 성종은 법전을 완성했다.<sup>64)</sup>

성종 이후 연산군 때부터 정치가 문란해졌지만 한편으로 조선시대 문화를 대표하는 유학이 크게 발달했다. 특히 퇴계 이황은 조선 5백년간 최고의 대유였다. 또 율곡 이이도 유명했다.<sup>65)</sup> 이처럼 율곡과 퇴계는 “조선시대에 유학이 성했으며 이 시대 유자의 대표로 서술”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조선의 악폐로 지목된 당쟁을

60) 『대일본역사제요』, 56쪽.

61) 『대일본역사제요』, 55, 74-77쪽.

62) 『대일본역사제요』, 110, 122쪽.

63) 朝鮮總督府, 『普通學校國史教授參考書 全(朝鮮史歷教材)』, 84쪽.

64) 『대일본역사제요』, 110, 112쪽.

65) 『대일본역사제요』, 111쪽, 朝鮮總督府, 『普通學校國史 兒童用 下卷』(1922), 9-11쪽.

설명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곧 이퇴계의 사적은 “서원의 흥기와 그 폐해를 악살” 하기 위해서, 또 이율곡의 사적은 “당파의 기원과 정권의 쟁탈을 서술하여 정치의 문란한 모습”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sup>66)</sup> 당쟁은 현명한 왕으로서 한때 국정을 일신했던 영조와 정조의 개혁정치 마저도 좌초시켰으며 이후 조선은 급격히 쇠락했다.<sup>67)</sup> 이로 볼 때 조선의 유학, 이황, 이이 등을 묻는 문제에서 당쟁을 언급하지 못하면 모범답안이 될 수 없었다.

### 3. 근세사

근세의 조선사는 일본의 한국강점을 정당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근세 조선사를 설명할 때 첫 번째 키워드는 대원군이였다. 보통학교의 역사교육에서 이 시기는 “대원군 집정 중의 주된 사적과 일본과의 수교 사실”을 가르치는 게 목표였을<sup>68)</sup> 만큼 대원군을 설명하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다.

근세의 조선은 「정헌론과 대만정벌」장에서 일본 ‘신정부의 외교방침’ 다음 절에 ‘조선의 쇄국’으로 시작한다. 일본은 왕정복고 뒤 세계의 대세에 따라 외국과 수교할 방침을 세우고 외국의 선진문물을 시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대원군이 집권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했다. 대원군은 정권을 잡은 뒤 외척의 발호를 억제하고 제도를 개혁하여 기강을 바로 잡았다. 또 서원을 철폐하고 인재를 당파에 구애받지 않고 채용하여 서정의 쇄신을 꾀했다. 이처럼 내정개혁의 성공을 바탕으로 프랑스와 미국의 강화도 공격을 모두 막아내었다.

한편 일본은 조선과도 수교하기 위해 애썼으나 조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뿐더러 사자에게 모욕을 주기조차 했다. 이러한 무례의 원인은 당시 실권을 쥐고 있던 대원군이 프랑스와 미국을 물리치면서 높아진 의기 때문이었다. 일본에서 정한론이 일어난 것도 다 대원군의 무례 때문이었다. 그 후 일본은 평화적 수단으로 교섭을 추진하였는데, 1875년 강화도에서 물을 구하려는 일본의 운양호를 조선군이 포격함으로써 운양호도 이에 응사하여 포대를 함락시켰다. 그 후 이 일을 수습

하기 위해 일본은 조선과 수호조약을 체결했다. 그 제1조에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청의 속방이 아니라고 명시했는데, 이것은 유신 이래 최초로 해결한 현안이었다.<sup>69)</sup>

국교 수립 이후 조선정부는 일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일본에서 돌아온 김옥균 등이 국정개혁을 부르짖고 고종이 친히 정무에 나서서 일본 문물을 수입하고자 했지만 대원군 일파인 수구당의 반대는 의연했다. 그 와중에서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 대원군이 재집권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는 거의 파탄에 이르렀다. 이후 청이 조선에 주둔하면서 민씨의 사대당이 다수 권력을 잡고 국정을 농단하여 조선의 내정은 피폐해졌다. 이때 김옥균은 지사, 위안스카이(袁世凱)는 사대당의 후원자로 묘사되었다.

이에 1894년 동학당이 난을 일으키자 스스로 진압할 수 없었던 조선정부는 청에 구원을 요청하고, 청은 속국의 어려움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파병했다. 일본도 파병하면서 거류민 보호와 함께 청이 조선을 속국으로 여기는 것을 묵인할 수 없고, 또 조선도 속국임을 부인하는 것을 명분으로 삼았다. 그 와중에도 일본은 동양의 평화를 위해 일본과 청국이 함께 조선 정치를 개혁하기를 바랐지만 청이 응하지 않을뿐더러 군대를 더 보냈기 때문에 부득이 청과 일전을 치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명치 27·8년의 전역, 곧 청일전쟁이었다.<sup>70)</sup>

일본은 청일전쟁의 승리로 청으로부터 조선 독립 인정, 요동반도·대만·평호도(澎湖島) 할양, 배상금 2억냥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모노세키조약을 맺었다. 그러나 일본은 삼국간섭으로 요동반도를 청에 반환하고, 다시 조선은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들어갔다. 러시아는 북청사변(1900)을 전후하여 중국에 세력을 확장하는 한편으로 한국의 국경을 점령하는 등 한국의 독립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몇 차례 러시아와 교섭하여 반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성의를 보이지 않고 군비를 증강함으로써 일본은 평화리에 문제를 해결하는 희망을 버리고 1904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다. 이것이 명치 37·8년 전역, 곧 러일전쟁의 배경이었다.<sup>71)</sup>

러일전쟁의 승리 후 일본은 러시아와 포츠머스에서 조약을 맺고 한국에서 일본

66) 朝鮮總督府, 『普通學校國史教授參考書 全(朝鮮史歷教材)』, 138쪽.

67) 『대일본역사제요』, 122~123쪽.

68) 朝鮮總督府, 『普通學校國史教授參考書 全(朝鮮史歷教材)』, 196쪽.

69) 『대일본역사제요』, 154~157쪽.

70) 『대일본역사제요』, 164~168쪽.

71) 『대일본역사제요』, 169~174쪽.

의 정치·군사상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미 개전 초에 한국과 의정서를 체결한 일본은 전쟁의 승리로 평화를 확보한 뒤 다시 협약을 체결하여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았다. 이후 한국은 일본의 보호 아래 서정이 개혁되었지만 다년의 숙페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아 인민이 편안하게 살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동양의 평화를 확보하고 근본적인 혁신을 가하여 일본과 한국 양국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1910년 8월 한국황제로부터 일체의 통치권을 영구히 넘겨받았다.<sup>72)</sup>

오컨대 일본은 세계의 대세에 따라 외국과 수교하면서 조선과도 수교하고자 했지만 권력을 장악한 대원군의 오만한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오직 평화적 수단으로 조선과 국교를 맺고, 조선의 국정개혁과 청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힘썼다.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청, 러시아 등과 전쟁했지만 그것도 오로지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 최후로 조선인민의 행복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 한 국황제의 뜻을 받아들여 일본은 조선을 병합했다. 그리고 병합을 통해 조선인은 역사상 처음으로 독립국가의 국민으로서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고, 만세일계의 천황이 다스리는 일본국민이 됨으로써 왕조의 흥망에 따른 고통을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근세 조선사의 요점이었다.

## V. 조선인 초등교사의 조선사 인식

교과서와 교사용 지침서 속의 조선사를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어떻게 수용하고 있었을까.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수업노트나 회고 등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 자료들의 소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단편적이지만 당대에 간행된 교육잡지나 강습회의 수업지도안을 이용해 그 실태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 교수안이나 수업사례의 경우 일선학교의 교사가 직접 참여하기도 했지만 이 경우도 실제 수업사례보다도 모범적 수업지도안, 곧 조선총독부의 역사교육목표를 어떻게 교육현장에서 구현할 것인가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한계를 지닌다.<sup>73)</sup>

72) 『대일본역사제요』, 179~181쪽.

73) 김봉석, 『『조선의 교육연구』에 나타난 일제시대 초등 역사 수업 실천, 『사회과학연구』, 제46권 제3호(2007), 54쪽.

1928년 함경남도공립사범학교는 초등교육연구발표회를 계획·추진하는 가운데 ‘국가교육’ 특집을 마련하고, 함경남도 각 부·군교육회별로 국가교육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발표했다. 함경남도 내의 보통학교 교장·훈도 등이 총 76개의 주제를 발표하고, 이 중에서 15개의 주제가 『참고자료(10)』에 수록되었다.

발표자들에 따르면 국가교육의 목적은 보통학교규칙 제13조에 규정된 대로 “국체를 알게 하고 국민으로서의 지조(志操)를 양성”하는 데 있었다.<sup>74)</sup> 발표자들은 대개 국가교육의 목적과 교수법 등을 설명하는데 지면을 소비했는데, 극히 제한적으로 조선사를 언급하였다. 그 까닭은 그들이 볼 때에도 국가교육에서 조선사는 불완전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교과서는 “편찬자가 전력을 다하여 만든” 것이므로 교과서 본문을 읽을 때는 숙독완미(熟讀玩味)하여 생명을 던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 교사조차도, 『보통학교국가』의 조선사실(朝鮮史實)을 평가할 때 앞뒤의 연결에서 곤란함을 느낀다고 할 정도였다.<sup>75)</sup>

또 다른 교사는 “현재의 교과서(『보통학교국가』—인용자)는 용화문제에 부적당한 내지와 조선의 전쟁 사료가 많은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실제로 “보통학교에서 진구황후의 신라정벌과 토요도미 히데요시의 조선정벌 같은 교재를 교수할 때 아동이 안색을 바꾸어 이상한 질문”을 한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이 역사교재는 교과서의 집필자조차 가르칠 때 매우 신중할 것을 당부한 부분이었다. 이런 까닭에 이 교사는 앞으로 교과서를 개편할 때 “이처럼 평화스럽지 못한 사료를 기재하기보다 내선 선조(先祖)시대의 평화적 사료를 많이 넣어서 그들의 머릿속에 옛날 우리 선조도 이같이 내지인과 사이 좋게 교제했다는 인상을 주는 편이 내선용화에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sup>76)</sup>

한편 1928년 2월 대구에서도 경상북도교육회 주관으로 「국사과교수법연구회」가 열리고, 대구수창공립보통학교 훈도인 오성달이 『보통학교국가』 하권 제51 「명치천황」을 주제로 실시수업을 진행했다.<sup>77)</sup> 수업은 메이지천황의 죽음에 대해 학습하

74) 新上公立普通學校訓導 韓冀淑, 「國史教育に關する研究」, 咸南教育會(編), 『參考資料(10): 國史教育に關する研究』(1928), 56쪽; 三湖公立普通學校訓導 張得萬, 「國史教育に於ける私の考察」, 咸南教育會(編), 앞의 책(1928), 84~85쪽.

75) 廣泉公立普通學校訓導 許範, 「私の國史教育」, 咸南教育會(編), 위의 책(1928), 120~121쪽.

76) 長津公立普通學校訓導 宋炯教, 「國史教育研究」, 咸南教育會(編), 위의 책(1928), 205쪽.

77) 「國史科教授法研究會日程及出席者氏名」, 『文教の朝鮮』, 33호(1928.5), 14쪽.

면서 천황의 위업과 인덕을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대부분 일본사에 관련된 것이지만 특별히 조선과 관련해 교사는 “한국을 보호하고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시켜 “조선과 일본 사이가 금일처럼 밀접해진 것도 대제(大帝)의 성덕”임을 강조했다.

또 천황의 인덕으로서 “내지와 조선이 하나로 되었을 때에 메이지천황은 1천 7 백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조선에 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바탕으로 산업을 발전시키고, 문명이 아직 낮은 사람을 교육시키고, 도처의 벌거숭이산에 조립하고, 혹은 농작물 종자에, 혹은 가련한 고아를 기르는데 사용”했음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러한 수업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 자신이 메이지천황의 성덕을 경모하여 받들고 붕어(崩御)에 대해 매우 슬픈 마음을 드러”내야만 가능했다.<sup>78)</sup> 비평회에서 나온대로 천황의 위업은 메이지유신부터 한국병합까지의 모든 과정에 들어있기 때문에 수업은 이것을 유기적으로 계통적으로 연결하는 문답으로 이루어져야 했다.<sup>79)</sup> 이 수업안대로 하면 근세 조선사는 메이지천황의 위업과 성덕을 설명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1931년 10월에 개최된 제11회 전선초등교육연구대회에서 경성고등공립보통학교 훈도 맹건호는 「국사과에서 조선사력(朝鮮事歷)의 사명」으로서 1) 보통학교나 소학교나 국사교육의 목적은 다르지 않고, 2) 보통학교에서 국사를 취급할 때 고려를 필요로 하며, 3) 조선사력의 사용은 내선화친 관계에서 시작해 병합의 대정신을 이해시키는 것이며, 4) 병합의 대정신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국사교육의 일대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두 번째와 관련해 “내선관계를 정복·피정복, 약육강식”으로 보는 것은 역사에 무지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조선사력을 가르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다.<sup>80)</sup>

또 맹건호는 조선사력을 취급할 때 첫째로 북방제국과의 관계를 한일관계와 비교할 것을 주장했다. 조선은 위치상 북방대륙에서 일어난 나라였기 때문에 항상 침략받고 압박받아 완전한 독립을 유지한 일이 없이 침략에 굴복한 역사였다는 인식이었다. 둘째로 문화사를 강조하되 친밀했던 한일문화사의 관계를 가르치도록

78) 吳聖達, 「實地授業」, 『文教の朝鮮』, 33호(朝鮮教育會, 1928.5), 29-31, 39-40쪽.

79) 「批評會」, 『文教の朝鮮』, 33호(1928.5), 53쪽.

80) 京城校洞公立普通學校 孟健鎬, 「普通學校國史に於ける朝鮮事歷の取扱」, 『朝鮮の教育研究』, 4권 12호(朝鮮初等教育研究會, 1931.12), 140-142쪽.

했다. 셋째로 한일관계사는 칠두칠미 친화(親和)관계사로 나가야 한다면서 가르칠 때 가장 어려운 진구황후의 신라정벌과 임진왜란을 예로 들었다. 진구황후의 ‘삼한출병’의 원인은 구마소(熊襲) 진압에 있었는데 그 결과 삼국의 문화가 수입되어 양국교통이 빈번해져 더욱 친밀해졌다. 또 토요토미의 ‘조선출병’ 목적은 조선이 아니라 명(明)이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메이지유신 이후의 역사는 병합의 대정신을 목표로 가르칠 것을 주장했다.<sup>81)</sup>

청주공립보통학교의 이광익도 국사교육을 할 때 “내선융화를 기조로 하고, 특히 양자의 연략관계를 주로 하는 교재를 선택”할 것과 “신영토(조선—인용자)의 국민교육에 입각해 가치있는 조선반도의 사실을 정선”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 “조선사를 통해서 일관된 사대사상을 타파하여 일한병합의 대이상을 함양하는 길로 나아갈 것”을 요구했다.<sup>82)</sup>

수업사례를 발표하고 교육잡지에 기고한 조선인 훈도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일단 발표된 내용은 다른 교사에게 영향을 미쳤다. 한 예로 1934년에 『경기교육』에 발표된 일본인 훈도의 조선사 교수 방침은 맹건호의 교수법을 바탕으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사보다 문화사를 중시하며, 진구황후의 조선정벌과 토요토미의 ‘조선출병’을 설명하는 방식에 차이가 없었다.<sup>83)</sup>

무엇보다도 조선인 교사들의 교수법은 앞장에서 본 것처럼 학무당국의 교육방침과도 다르지 않았다. 단적으로 맹건호는 “조선사는 국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내지사·조선사를 구별하지 않아도 좋다”면서 현재는 편의상 조선사를 별도 과목으로 설치하지 않고 “국사의 일부분으로서 또 과도기라는 의미에서 조선사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sup>84)</sup> 이것은 단독의 교수시간을 갖지 못한 채 일본사와 관계있는 곳에 삽입되어 교수될 뿐인 ‘향토사’로서의 조선사력과 전혀 다를 바 없었다.<sup>85)</sup>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가 위와 같은 역사상을 교정하거나 별도로 조선사를 계통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우선 한말에 출간된 계몽역사서는 강

81) 孟健鎬, 위의 글(1931.12), 142-143쪽.

82) 淸州公立普通學校 李光翼, 「國史教育の諸問題」, 『朝鮮の教育研究』, 4권 12호(1931.12), 146-147쪽.

83) 水原公立普通學校 崔村美義, 「普通學校國史教授の指針」, 『京畿教育』, 4호(京畿道教育會, 1934.5), 40-42쪽.

84) 「質疑應答」, 『朝鮮の教育研究』, 4권 12호(1931.12), 148-149쪽

85) 慶尙北道教育會(編), 「國史教授法打合會原案」, 『文教の朝鮮』, 33호(1928.5), 102-103쪽.

검과 동시에 거의 발매금지되었다.<sup>86)</sup> 또 황의돈의 『중등조선역사』(1926) 등의 조선역사서가 출간되었지만 일부 사립고등보통학교에서 조선사 교재로 사용되었을 뿐이었다.<sup>87)</sup> 학무당국은 교사들에게 경비가 허락하는 한 적당한 참고도서를 구입하여 자유롭게 연구할 것을 권하면서 참고도서 목록을 제시했다. 그러나 표준으로 제시한 40여권의 도서와 교수법 자료 중 조선사 관련은 한 권도 없었고, 참고서의 교재자료 45권 중 7권만이 조선사 관련이었다. 그나마도 『동국여지승람』,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제외하면 모두 일제 관학자들의 저서였다.<sup>88)</sup>

## VI. 맺음말

일제하 초등학교 교사는 여러 경로를 통해 형성되었지만 경성사범학교를 졸업하여 제1종훈도 자격을 취득하는 외에는 취업을 위해서든, 승진을 위해서든 수험과정을 거쳐야 했다. 초등교사는 보통학교나 사범학교(또는 사범과정)에서 일본사를 통해 조선사를 배우고, 학교에서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치면서 조선사의 상을 재확인했지만 수험과정을 통해 가장 체계적이고 폭넓게 조선사를 학습했다.

초등교사가 조선사 지식을 얻고 이미지를 형성하는 주된 매개체는 교과서였다. 일제시기에 사범학교(또는 과정)에서 사용된 일본사 교과서는 수십 종을 헤아리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대일본역사제요』였다. 이 교과서는 1920년부터 약 15년 동안 조선총독부의 검정을 통과한 거의 유일한 일본사교과서로서 교과서 채택과 수험과정의 참고서 선정에서 독점 지위를 누렸다. 게다가 이 책은 조선사의 내용에서 『보통학교교사』나 다른 중등 일본사교과서보다 체계적이고 상세했다. 초등학교 교사라면 어떤 기회든 한 번쯤은 정독하지 않을 수 없었다.

86) 1909년 2월 23일 출판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출간된 도서 중 51종이 1910년 11월 19일자로 발매반포금지 처분을 받았다. 『朝鮮總督府官報』, 1910.11.19

87) 1930년 4월 현재 황의돈의 『增訂 中等朝鮮歷史』(鴻文園)는 양정·휘문·보성고등보통학교와 경신학교, 장도빈의 『朝鮮歷史 大全』(博文書館)은 배재고등보통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었고, 권덕규의 『朝鮮留記』는 참고서로 지정되었다. 岩村俊雄(京畿道視學), 『朝鮮歷史ノ教授ニ關スル件報告』(1930.4.18).

88) 慶尙北道教育會(編), 『國史教授法打合會原案』, 『文教の朝鮮』, 33호(1928.5), 110-114쪽.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교원시험 문제를 보면 시기적으로 고대와 근세에 집중되고 고려는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주제별로는 한일관계사와 문화사를 묻는 문제가 많았다. 유형별로는 인물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그 시대의 의미를 묻는 경우가 많았다. 그 어떤 경우라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단순한 답안은 좋은 점수를 얻지 못했다. 그 결과 응시자의 태반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반면에 합격자는 소수였지만 학무당국이 원하는 역사교육의 목적을 잘 이해한 경우였다.

이처럼 어렵게 수험과정을 통과하고 교직에 종사하면서 습득한 조선사였지만 그 상은 파편적이고 부분적이었다. 아무리 상세한 교과서라도 조선사는 일본사의 부속된 역사로서 그 자체로서 완결 구조를 갖지 못했다. 조선사는 일본과 관계되었을 때, 곧 한일관계사로서만 의미를 지녔다. 이 경우 삼국통일처럼 조선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도, 일본과 조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관계 단절 이후의 고려사의 비중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신화에 불과한 신대부터 삼국시대까지, 그리고 개항을 전후해 한국 장점에 이르는 시기는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출제 빈도가 높았던 문화사는 정치사를 대신해 교과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삼국의 일본으로의 문물과 불교의 전래, 고려의 불교 문화, 조선의 유교 문화 등이 비중 있게 서술되었다. 삼국의 문물전래는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증거였으나 문화의 독자성 보다는 우수한 중국문화의 매개자로서만 다루어졌다. 불교와 유교문화의 강조는 조선과 일본의 문화적 친연성을 드러냄으로써 ‘동화’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많이 활용되었다. 한편 유학은 정치를 문란하게 만들고 영·정조 개혁마저도 좌초시켰던 당쟁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

무엇보다도 조선사는 피지배의 역사, 곧 한번도 독립한 적이 없는 역사였다. 역사의 시작부터 남부는 일본의 통치 대상이었으며, 북부는 한(漢)종족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 또 고려 때부터 일본에 병합되기 전까지의 조선사는 중국에서 차례로 일어난 국가들, 곧 요, 금, 원, 명, 청에 복속된 역사였다. 이와 함께 조선사를 왕조의 창시자 중심으로 보면서 외세 뿐 아니라 왕조의 흥망성쇠에 따른 민중의 고통이 강조되었다. 이것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하는 일본제국의 역사와 대비되었다. 따라서 조선인은 일본제국의 신민이 됨으로써 역사적 현실적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고, 한국병합의 진정한 의의는 여기에 있었다.

단 조선사가 외세에 예속된 역사라고 학습했지만 초등학교에서 아동을 가르칠 때는 신중한 태도가 요구되었다. 고대 일본의 조선 영유와 근세의 병합 과정은 평화적 목적에서 일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인식해야 했다. 3·1 운동 이후에야 역사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감안할 때, 일본 아동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는 ‘해외 진출’의 역사였지만 조선 아동들에게는 피침략의 역사로서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일제하의 초등학교 교사는 조선총독부의 역사교육의 목적을 수렴과정을 통해 체득한 뒤,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형성된 조선사상을 바탕으로 조선인 아동에게 왜곡되고 부정으로 가득 찬 조선사를 가르쳤다.

### 참고문헌

『朝鮮總督府官報』; 『文教の朝鮮』; 『朝鮮の教育研究』; 『京畿教育』; 『中等歷史教科書調査要旨(原案)』;  
 加藤盛一·高橋俊乘, 『大日本歷史提要 全』. 東京: 富山房, 1920.  
 朝鮮總督府, 『普通學校國史 兒童用(上·下)』. 京城: 1922.  
 朝鮮總督府, 『普通學校國史教授參考書 全(朝鮮史歷教材)』. 京城: 1923.  
 朝鮮教育會, 『國史並外國歷史教授法要綱』. 『教育參考資料』 제4집, 1924.  
 京畿道公立師範學校, 『京畿道公立師範學校一覽』. 京城: 1924.  
 朝鮮初等教育研究會, 『第一回朝鮮初等教育研究會錄』. 京城: 1925.  
 佐佐木郷見, 『小學校及普通學校教員試驗者指針』. 京城: 半島社, 1925.  
 咸南教育會, 『參考資料(10): 國史教育に關する研究』. 咸興: 1928.  
 岩村俊雄, 『朝鮮歷史ノ教授ニ關スル件報告』. 1930.  
 朝鮮總督府, 『普通學校國史(卷一·卷二)』. 京城: 1932.  
 朝鮮公民教育會(編), 『小學校普通學校教員試驗要諦並問題集』. 京城: 朝鮮公民教育會, 1935.  
 大谷保(編), 『改訂 小學校教員試驗要諦並問題集』. 京城: 朝鮮公民教育會, 1940.  
 『自昭和四年 至昭和十年 教科用圖書檢定の 件』(국가기록원 CJ0004907).  
 權五鉉, 「임시 역사교과용도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과 황국신민화 역사교육」. 『歷史教育論集』 30집, 2003, 1~27쪽.

김경미, 「‘황민화’ 교육정책과 학교교육 : 1940년대 초등교육 ‘국사’ 교과를 중심으로」. 방기중(편), 『일제 과시즘 지배정책과 민중생활』. 서울: 해안, 2004, 147~185쪽.  
 김봉석, 「『조선의 교육연구』에 나타난 일제시대 초등역사 수업 실천」. 『사회과교육』 제46권 제3호, 2007, 51~79쪽.  
 金英宇, 『韓國近代敎員教育史(I): 初等學校 敎員養成教育史』. 서울: 正民社, 1987.  
 金廷鶴, 「日帝下の 歷史教育」. 『日帝의 文化侵奪史』. 서울: 민중서관, 1970, 127~188쪽.  
 梁正鉉, 「日帝強占期 歷史教育 理念과 政策: 1920~30년대 중반 普通學校를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77집, 1997, 215~242쪽.  
 이기훈, 「일제하 보통학교 교원의 사회적 위상과 자기인식」. 『역사와현실』 63호, 2007, 99~134쪽.  
 이명화, 「일제총독부 간행 역사교과서와 식민사관」. 『역사비평』 15호, 1991, 52~63쪽.  
 이승구(외), 『한말 및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목록 수집 조사』. 서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1.  
 장신, 「1919~43년 조선총독부의 관리임용과 보통문관시험」. 『역사문제연구』 8호, 2002, 45~77쪽.  
 장신,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 교과서 편찬」. 『역사문제연구』 16호, 2006, 33~68쪽.  
 최양호, 「일제하 조선총독부 편찬 초등용 국정교과서 변천」. 『교과서연구』 6호, 1990, 100~112쪽.  
 최양호, 「일제 통치기 한국에 있어서의 초등역사교육과정 연구」. 『歷史教育』 48집, 1990, 47~116쪽.  
 旗田外, 「朝鮮人兒童に對する朝鮮總督府の歷史教育: 第二次朝鮮教育令下の歷史教育」. 『日本は朝鮮 何を教えたか』. 東京: あゆみ出版, 1987, 27~49쪽.  
 磯田一雄, 「第三次第四次朝鮮教育令下の國史教科書の改訂狀況: ‘内地’及び‘滿洲’の國史教科書との 比較研究のための覺書」. 『成城文藝』 130호, 1990, 12~48쪽.  
 佐藤由美, 『植民地教育政策の研究: 朝鮮 1905~1911』. 東京: 龍溪書舎, 2000.

**국문 요약**

이 글은 일제시기 초등학교 교사가 체득한 조선사상(朝鮮史像)을 다루었다. 교사는 다양한 과정에서 조선사를 학습하는데, 그 중에서도 자격, 취업, 승진시험의 의미를 지닌 교원시험이 제일 중요했다. 교사지망자는 시험 대비를 위해 기출문제를 정리한 뒤 주로 사범과정의 교과서를 반복 학습했다. 이 때 가장 대표 교과서가 『대일본역사제요』였다. 이 책은 조선총독부의 검정을 통과한 거의 유일한 교과서였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수험과정을 통해 얻은 조선사는 일본사에 부속된 역사로서 그 자체로서 완결 구조를 갖지 못했다. 조선사는 일본과 관계되었을 때, 곧 한일관계사로서 의미를 지녔다. 따라서 신화에 불과한 신대(神代)부터 삼국시대까지, 그리고 개항부터 1910년 한국병합에 이르는 시기만 부각되었다. 또 한국사는 한번도 독립한 적이 없는 역사였다. 역사의 시작부터 한국의 남과 북은 일본과 중국의 통치대상이었다. 고려 이후의 한국사는 중국의 각 왕조에 복속된 역사였다. 왕조가 교체될 때마다 민중의 고통이 가중되는 역사였다. 반면에 일본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하는 역사였다. 조선은 일본제국의 신민이 됨으로써, 외세의 지배와 왕조 교체에 따른 고난을 비로소 극복할 수 있었다. 역사교육의 최종 목적인 한국병합의 의의는 여기에 있었고, 이것은 교사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이었다.

● 투고일 : 2008. 4. 8.

● 심사완료일 : 2008. 5. 29.

● 주제어(keyword) : 훈도(primary school teachers), 교원시험(teacher's license examination), 『대일본역사제요』(*Daeilbonyeoksajeyo*), 한국사(Korean history), 교과서(textbook).